



현의송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⑬아지무읍의 '회원제 농촌 민박'

농촌에 있는 것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 농립수산성은 1992년 과소화(過疎化)·고령화의 진행과 경작 포기 농지가 급격히 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립수산성은 그린투어리즘을 '푸르름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자연과 문화,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滞在型) 여가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가 민박이나 농가 레스토랑, 농산물 직매소 등이 전국 각지에 도입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아지무(安志)읍이다.

아지무읍은 오이타(大分)현 북부에 위치한 인구 8천여 명의 중산간지역이다. 유명한 벚푸 온천에서 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 포도, 딸기, 화훼 등의 농업이 발달했는데 서일본 지역에서는 '아지무 히노키카리' 등의 쌀과 포도 단지로 유명하다.

입을 계속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일부 농가뿐만 아니라 아지무읍 나아가 농촌 전체가 활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직업이나 연령, 성별을 초월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996년 마침내 아지무읍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지난달 하순 아내와 동행해 미야다 씨 농장에서 그를 만났다. 미야다 씨는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농촌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사회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야구에서처럼 직구(直球, 즉 농산물생산)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화구(變化球, 즉 그린투어리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현재 아지무읍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홀수 달 제4 토요일에 정례회를 개최한다. 주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농



아지무읍 그린투어리즘의 한 프로그램인 농촌민박에 참여한 도시 청소년들이 모내기 체험행사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농촌민박은 도시생활에 익숙한 신세대들에게 도·농교류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지무읍의 민장 등 전통음식만들기 체험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계기가 된다.

재발견을 통해서 농촌의 가치와 장점을 도시 주민과 공유하는 의미의 이벤트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농촌 체험형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부성은 중고생들에게 1년에 7일 이상 의무적으로 농촌 체험 학습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점점 농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미야다 씨는 강조한다. 지역 주민 모두에게 그린투어리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그는 매월 한 번씩 전 주민이 솔선해서 '일본

은 모두가 활력이 넘쳐 병원에도 잘 가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 개발을 할 필요도 없고 아지무에만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최대한 활용한다. 그래서 '보통 입는 옷처럼 그대로 하는 집대'가 옛날에 대한 향수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을 도시 민들도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다.

여관에서의 숙박이나 민박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농가에서 숙박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농촌 민박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도시 주민이 점점 늘고 있다. 앞으로 농촌으로의 회귀나 잃어버리고 지내온 것에 대한 느끼는 향수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농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야다 씨는 회원제 농촌 민박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여관업으로 영업 허가가 되도록 인정해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2002년 3월 이 지역 농박 실적을 감안해 오이타현의 여관업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마침내 여관업으로서

서 이로리를 만들어 응접실로 쓰고 있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그 집 3대 6명과 우리 부부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밭에서 바로 수확한 시금치 등 채소류와 고춧잎 절임, 된장국 수제비 등 전통 요리가 대부분이었다. 식품위생법의 한 조항이 농박 손님과 함께 요리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수제비를 만들어 보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이 집 할머니는 민장 만들기의 명인이다. 주로 수확여행을 온 학생들을 상대로 민장 만들기 체험을 지도한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지금은 인기 있는 체험 행사가 되고 있다.

이 '백년의 집'에서는 연간 400여 명이 농박을 체험한다. 방명록을 보니 우리나라 충남, 전북, 전남의 군청 직원들도 많이 다녀간 것 같다. 밤 11시가 되어 내일을 위해 자고 아침에 다시 이야기 하자며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 3대 가족은 우리 부부를 보며 "당신들은 하룻밤 숙박

관 주도 탈피 주민 스스로 혁신 '그린투어리즘' 모내기 체험행사부터 겨울에는 벗짚쌓기 대회

1996년 3월 아지무읍에서는 농민, 상공업인, 공무원, 교사, 주부, 학생 등 30명이 모여 '아지무읍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를 탄생시켰다. 연구회는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아지무읍의 자연과 문화, 식생활, 주거생활 등을 체험하는 농촌 민박과 지역의 벚농사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국 벗짚 쌓기 대회, 유럽 그린투어리즘 연수를 위한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지무읍 그린투어리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미야다 세이이치(齋田静一·56) 씨다. 그는 일본 수의축산대학을 나왔고 3ha의 포도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이며 현재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미야다 씨는 고품격화 진행되고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자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농민들에게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파했다.

또한 농업, 농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1992년 농민 8명으로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를 조직하고 연구모

집성 그린투어리즘 대책실장이나 수확여행 협회 이사장 등을 초청해 강의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아지무읍에는 언제든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14호이고, 이벤트 등 특수한 때는 농가 이외의 가정을 포함해 40호가 관광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제가 만들어져 있다. 관광객의 수용은 회원제이고 농가가 멤버십카드를 발행해 회원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년 농촌민박(농박) 체험자가 증가해서, 1999년에는 100명 정도였으나 2005년에는 5천여명까지 늘었다. 그중 700명 정도는 한국인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읍에서는 한국에 강좌도 열고 있다.

해마다 아지무읍에서는 도시지역 청소년이나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모내기 체험행사가 열려 농사의 시작을 알린다. 겨울에는 벗짚 쌓기 대회도 열린다. 예전 논에서 겨울철 이면 흔히 볼 수 있었던 벗짚더미의 중요성과 그 문화를 후세에 전하고 아름다움과 아이디어를 경쟁해 보자는 뜻에서 1999년 시작했다. 이는 자원 활용에 의한 농촌 경관의

주부·노인들 지혜·경험 활용, 새로운 농촌경영 여관업 허가...중·고생 1년에 7일 체험 의무화

의 영업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전국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야다 회장의 설명을 듣고 그의 소개로 농박 체험을 하기로 했다. 아지무읍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백년의 집' 도키에다(時枝) 씨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경이었다. 인사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로리'(방바닥의 일부를 네모나게 잘라내고 그곳에 솥불을 피워 취사나 난방을 함)가 있는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이 집은 아들 내외와 손자 등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은 할아버지(83세), 할머니(77세), 아들(56세, 농협 직원), 며느리(농업공제조합 직원, 52세), 손자 3명(간호사, 보육원 교사 등)이었다. 논 2ha, 밭 50a, 뽕밭 2ha에서 1990년까지는 주로 양잠과 쌀농사를 했다고 한다.

주택은 건축한 지 110년이 되었다. 그래서 간판도 '백년의 집'이라고 붙였다. 부엌과 화장실을 약간 개량했고, 양곡창고를 수리해

을 했으니 한국에 있는 우리의 먼 친척이 되었다"면서 회원증을 만들어주었다. 아지무읍 관내에서 10번 숙박하면 가까운 친척이 되고 예경사에도 초청을 받는다고 한다.

열차를 타고 히로시마로 돌아오는 내내 머리 숙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60~70대의 고령자들이 현역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었다. 도시에서 정년을 하고 귀농한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농가 주부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판하고 농가 레스토랑을 개설하는 경우는 더 많았다. 특히 농촌에서는 여성에 의한 농업 관련 기업(起業)이 붐이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특히 농촌의 환경은 세계화와 함께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과거와 타인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나 자신과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일본 농민들은 자신과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광주 일본일본통신원>eshyun21@naver.com

지역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주광역시 북부구

전화번호: 227-9670, FAX: 227-9660

인터넷: www.gwangju.go.kr

당선확신!!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 선거구명, 투표장명, 유권자명, TV투표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문의: 026-6523-4

017-603-6524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읍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061-383-8283

담양한과

삼보전기온플랜넵

삼우상사

027-228-8742

232-6283

528-0282